

2023. 8. 27

제114권 35호

주일 1·2부 예배

오전7:30(1부),	오전9:00(2부)	인도자:김병우목사(1부), 권훈목사(2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송영찬	찬양대
교독	*서서 12장	다같이
 108
고백의기도
사죄의선언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앞아서 308장
기도	I부 신두교 장로
		II부 배승룡 장로
봉헌 351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I부-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살롬찬양대
	II부-멀리 멀리 갔더니	호산나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 사도행전27:1~3(신약P.234)	담임목사
설교 【배(船) 안의 두 사람】	담임목사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같이
축도 송영	담임목사

주일 3부 예배

오전10:30	인도자:우경창목사
찬양	*서서 송축해 내 영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찬송	*앞아서 308장 "
기도 권태국장로
봉헌 351장 봉헌위원
봉헌송	*서서 213장(4절) 다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교회소식	*앞아서 담임목사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글로리아찬양대
찬송 637장 다같이
성경봉독 사도행전27:1~3(신약P.234) 담임목사
설교 담임목사

【배(船) 안의 두 사람】

성도의교제	*서서 다같이
파송과위탁 다같이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다같이
축도 담임목사

†내주기도 : I부 - 황혜원 장로 / II부 - 권현서 장로 / III부 - 권오탁 장로
 청년예배 - 조현상 청년 / 찬양 - 김선정 집사 / 수요 - 임은주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표현창 조재일 장애영 조동흠 조동흠 황금애 도금숙 김광수 김영순

*** 9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차량안내							
I	권중익	권순혁	김태섭	한숙경	이덕자	이천환	권영민	이상원	박연정	김은미	권대기	권태국
II	이성수	박정욱	이안희	김태희	김선정	박수미	권영대	지찬익	오경희	김정미	강성구	조금숙
III	김봉수	김경분	백은희	권명숙	이예진		오병수	박영미	도금숙	김인순	송예숙	김미순
IV	심재창	이주일	황재남	김윤경	천순선		서정순	김정임				
							최중일	이선영	민수명	송정아	박태훈	

주일4부예배 (오후12:00)

경배와 찬양 - 소리엘찬양단 / 목회기도·봉헌기도 - 담임목사
 설교 - 사도행전27:1~3(신약P.234) / 배(船) 안의 두 사람 / 담임목사

주일5부예배-청년예배 (오후1:45) 인도자:우경창목사

기도 - 이호준청년
 설교 - 로마서6:14~15(신약P.247) / No longer slaves / 우경창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3:00) (새순·비전교회 헌신예배) 인도자:권건욱학생(새순회장)

경배와 찬양 - 새순비전연합찬양단 / 찬송 - 545, 314, 54 / 기도 - 조수현학생(새순부회장) / 찬양 - 새순비전연합찬양대
 성경 - 요한복음4:50~53(신약P.145)-이민재학생(비전교회장) / 믿음 / 정승호목사

수요오전예배 (오전10:30)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동영상
 설교 - 고린도전서11:27~29(신약P.277) / 죄를 먹고 마시지 말라(370~373)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오후7:30) <경안남선교회 연합회 102주년 선교대회>

장소 : 도원교회

목상노트

“ 배(船) 안의 두 사람 ” (사도행전 27:1~3)

- 자의로 _____한 사람 (2)
 목상을 위한 질문)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도시, 데살로니가 출신이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어디든지 동행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적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 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될 때 자의로 동행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아리스다고처럼 동역자가 어디 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역자와 동행한 경험이 있는가?
- _____를 배운 사람 (1, 3)
 목상을 위한 질문) 죄인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업무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라 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했다. 가이사라를 출발한 후 잠시 머문 시돈에서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시돈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었다. 그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죄인에게 사 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례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처럼 호의를 베풀기 힘든 상황에서 호의를 베풀은 적이 있는가?